







社



Theme

Company

Culture





06 4인4색 인터뷰

KCC그룹의 미래 희망을 찾다 3040 KCC人들의 인사이트



10 아듀! 2020 2020년 KCC그룹 주요뉴스

14 Focus on I 1등과 1등이 만나 '최고'를 향하다 KCC글라스 ·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

16 Focus on II 글로벌 실리콘 회사를 향한 첫 걸음 KCC실리콘 출범

18 KCC건설 현장탐방 제주도에 우뚝 세운 5성급 호텔의 자부심 제주조선호텔 신축공사 현장

22 현장매거진 전주1공장 PVC생산부 라미생산과

26 영업소 이야기 넓은 들판에서 꿈꾸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대전영업소

30 KCC ISSUE I 2019/20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 WORLD BEST에 오르다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최고 등급 수상

32 KCC ISSUE II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 · 성실 · 창의가 빛나는 현장! 2020년 우수혁신과제(BIG-Y) 경진대회

34 KCC ISSUE III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품질 KCC · KCC글라스 KS-QEI 시상식 8개 부문 1위

36 KCC ISSUE IV KCC 자동차 헤드램프용 UV하드코팅도료 '세계 최초' AMECA 8년 인증 획득



38 슬기로운 DIY 생활 소품 하나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Up!

홈씨씨에서 크리스마스 월 행잉 DIY

40 트렌드 백과 코로나블루 이젠 안녕~ 실감콘텐츠로 문화생활 업그레이드!

42 사이언스 버려지는 에너지도 다시보자!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44 연말 휴게소 띵동~ 감사 메시지 배달왔습니다!

46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이드북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연말연시 연하장 작성

48 주기율표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_철

50 KCC NEWS

54 우체통

55 함께하는 걸음

말 한마디가 만드는 행복한 일상 전화 끊기 전에 '감사합니다!' 한 마디

+ 가능성

12월의 테마는 '가능성'입니다.

2020년 12월호(통권 334호) 주식회사 KCC 월간 사보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신고번호** 서초 라11683호 **신고일자** 2016년 8월 17일 **발행인** 민병삼 **편집인** 민병삼 발행처 (주)KCC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기획 · 편집 · 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인간의 잠재력은 측정할 수 없다.

꿈을 좇는 사람은 한계로 여겨지는 지점을 넘어 훨씬 멀리까지 나아간다."

- 로버트 크리겔 저서 'IF IT AIN'T BROKE…BREAK IT!' 中

국어사전에서 '가능성'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로 정의된다. 사전적 정의 속 성질과 정도는 대체 무엇일까. 누군가는 '재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정답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큰 재능을 가졌지만 결국 최고가 되지 못했던 사례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최고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던 끈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역대 최고의 농구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농구를 시작한 이래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고, 26번의 위닝샷을 놓쳤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도 모두 마이클 조던처럼 크고 작은 실패를 이겨내고 지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향한 가능성의 성질과 정도를 갖추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패는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갈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언젠가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 속 목적지를 더 멀리 더 크게 재설정해야 할 때다.

4인4색 인터뷰 06 07

KCC그룹의 미래 희망을 찾다

3040 KCC人들의 인사이트

KCC 수용성 도료의 기술력을 높이다

KCC 중앙연구소 Water-borne연구팀 김맹기 과장



"가능성은 ∞ or 0"

실패는 엮어내면 ∞의 가능성을 갖지만, 포기해버리면 단지 0에 불과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가능성'을 내비게이션 삼아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다. 20대부터 KCC의 현재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50대엔 KCC의 미래를 만들어갈 3040 직원들에게서 '우리의 가능성'을 들어보았다.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부터, 이젠 대중에게까지 친환경 마인드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좋은 품질'이 최선이었다면, 요즘은 품질은 기본이고 '환경성'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지요. 특히 유용성 도료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인체·환경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KCC에서는 이 문제점을 발빠르게 인식해 2000년도 초반부터꾸준히 수용성 도료를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수용성 도료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여주는 건물론, 유용성 도료에 비해 더욱 선명한 컬러를 도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쓰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CC는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해 현재 자동차, 건축, 컨테이너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용성 도료를 이용해 거둔 성과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수용성 도료가 적용 됐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현대자동차 2공장에서 수용성 도료적용을 시도했었습니다. PPG, BASF 등 글로벌 도료 기업에서도 쉽지 않은 환경에 손을 뗐었지요. 하지만 저희 팀은 2010년부터 소량생산 컬러에 대해 양산을 시작하였고, 2017년엔 비로소 100% 수용성 도료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10여년의 연구과정의 큰성과로 현재는 최고급 사양의 차종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C는 경쟁업체에 비해 수용성 도료의 시작은 늦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고기능성 제품부터 원가경쟁력을 가진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구성하면서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간의 기술력과 다양한 거래선에 축적된 우리만의 능력을 응용한다면 차별화된 제품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원천기술·미래신규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KCC를 글로벌 메이저 도료 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 싶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제가 배운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이마인드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걸어나가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로 만드는 KCC의 미래

서울영업소 project직판 영업팀 나상보 과장

정해진 파이 안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 영업은 언제나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2009년부터 영업을 시작한지 꼬박 11년이 되었지만,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업의 치열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변함 없던 영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데요. 여러국가들이 셧다운이나 락다운되며 전 세계 경제가 일순간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속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미래의 승리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KCC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 회사의 적절한 조치와 모든 구성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로써 스스로 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자재를 공급하면서 파트너사와의 신뢰감을 형성했고, 그 덕분에 2021년에는 더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활발히 펼쳐야 할 영업활동에 제약이 걸렸고, 팀원들과의 대면 소통도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대한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영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과거처럼 딱딱한 대면보고와 지시의 형태를 벗어나서, 팀원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소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보다 빠르게 현장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KCC 도료의 큰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은 마치 난 공불락의 성처럼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고객의 신뢰', '팀의 소통'이란 무기로 그 성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에서 저는 영업노하우와 영업매뉴 얼을 만들어서 신입직원도 1년 내에 베테랑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청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KCC 영업사원'하면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능성은 '신뢰'다"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회사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두터운 신뢰는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08

스마트 기술을 통해 건설 경쟁력을 더하다

KCC건설 경영정보부 스마트건설팀 **박재현 과장**



"가능성은 '믿음'이다"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다면, 스마트건설팀은 아무 것도 실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가능성을 만들어 냅니다. 건설은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기술'입니다. 물론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축적 되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2021년을 코앞에 둔 지금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마트 건설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경험 의존적'이었던 건설 산업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 정보 모델)·드론·로 봇·IoT'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면서 '지식·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 기술을 통해 정보의 공유, 단계 통합적 기술적용, 업역 간 단절을 해소하며 생산성을 개선할수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뿐 아니라 2018년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지요.

KCC건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IoT 기술을 현장의 시공 및 안전 업무에 적용하여,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인 KOSMO(KCC E&C On-site Smart Monitoring)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추락, 전도, 협착, 화재 등 재해 유형 별 3만여 장의 사진을 AI에 학습시켰고,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도 점차 많은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부족한점이 많지만, 그래도 쉼 없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건설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AI 엔진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여 CCTV·드론 영상을 활용한 AI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현실화 된다면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한 생산력 혁신과 시공품질, 안전성 강화도 이젠 꿈이 아닙니다.

사실 제조, 의료, 보안 등의 분야에 비해 건설산업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의 활용이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야하는 게 어려움은 많지만, 10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0에서 성장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한 걸음이지만, 더큰 족적을 만들기 위해 힘껏 내딛는 발걸음이 언젠가 "KCC건설"하면 "스마트건설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지않을까요? 그때까지 저와 저희 팀은 건설산업 인공지능 분야의전문가가 돼서 KCC건설의 '스마트 건설'을 향한 달리기를 옆에서 이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제조분야 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바로 '생산'입니다. 생산파트의 직원들은 지금도 올바른 품질의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지요. 특히 요즘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산업 시대가 본격화된 몇 해 전부터 생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춰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변화로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 조실행시스템)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과거에는 문서나 수기 기록 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ME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마감·조색공정에서는 고객이 요구하 는 색상 및 물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색제 및 첨가제를 투입해 야 하는데, 과거엔 수기 데이터를 찾아보아야 했던 불편함이 있 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물성과 색상을 완벽하게 구 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앞 으로 KCC의 공장들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힘을 쏟을 예정입 니다. 지금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물론, 공정표준화 작업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베테랑들의 숙련된 경험에 인 공지능을 탑재한 자동화설비가 더해져 혁신적인 KCC의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까지는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은데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해결이 힘 든일이 있을 때는 아직도 늘 현장을 찾곤 합니다. 공장 내에 발생 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체크하고 해결하면서 데이터를 축 적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는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쓰이는데요. 이제 곧 '우문 데답(우리의 문제는 데이터에 답이 있다)'라고 쓰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희 생산현장의 노력이 앞으로 KCC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계 최고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기준으로 MES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 부문간 정보소통도 더욱 원활해진다면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이상으로 큰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산 현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다

KCC 울산공장 도료생산부 김태동 과장



"가능성은 당장의 성공이 아닌, 미래를 위한 뿌리를 튼튼히 하는 과정이다"

성과가 없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니까요.

아듀! 2020 10 11

2020년 KCC그룹 주요뉴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부터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유독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한 KCC인들은 이 힘듦을 값진 시간으로 만들었다. 2020년 KCC의 빛나는 순간을 되돌아 봤다.

1. 신설법인 KCC글라스 출범

2020년 1월 KCC의 유리, 홈씨씨, 바닥재, 필름사업 부문을 분 리하여 신설법인 'KCC글라스'가 출범했다. 해당 사업의 전문 성을 확보해 핵심역량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 및 경영 투명성 을 제고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로 써 KCC글라스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 및 글로벌 종합 유리 사업자로서 우뚝섰다.

올 한 해 건설적인 비즈니스로 기업가치를 높여온 KCC글라 스는 12월 1일부로 코리아오토글라스와 합병하였다. 유리 원판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온 KCC글라스와 자동차 유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유리 가공기술을 입증한 코리아오토 글라스가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문가 예측이 나오 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유리 시장의 강자'를 향한 가능성을 키웠다.







2. KCC실리콘 사업 분사. 'KCC실리콘' 출범

12월 1일 신설법인 'KCC실리콘'이 출범했다. 그간 도료, 건자 재, 유리, 실리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KCC가 실리콘 분 야의 전문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을 위해 분사를 결정한 것. 이 로써 KCC실리콘은 연구·개발·영업에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 을 높이고, 사명에 '실리콘'을 넣음으로써 KCC의 도료, 건자 재 이미지를 벗고 '실리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세워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KCC실리콘이 "로컬 지배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 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이제는 한 가족이 된 모멘티브 퍼포 먼스 머티리얼즈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 군을 확대하고, 넓은 영업망을 통해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글 로벌시장 진출에도 청신호를 켤 전망이다.



3. KCC·KCC글라스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KCC와 KCC글라스가 '2020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K-BPI: Korea Brand Power Index)' 조사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 2년 연속, 가정용 바닥재 부문 5년 연속 1위 를 차지했다. KCC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 관하는 이번 조사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 건축용 수 성 페인트 브랜드인 '숲으로'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숲으로는 지난해 실시했던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한 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도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정용 바닥재 부 문에서는 KCC글라스의 바닥재 브랜드인 '숲'이 여러 경 쟁사를 제치고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들에게 '바닥재'로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4. KCC. 11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주관하는 '세계일류 상품'에 KCC 선박용 방청도료('Korepox EH2350')와 진공 차단기용 세라믹('VI (Vacuum Interrupter)')이 11년 연속으 로 선정됐다. 선박용 방오도료('Seacare A/F795') 역시 9년 위낸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연속 세계 일류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점유율 5% 이상 △시장규모 연간 5000만 달러 이 상 또는 수출 규모 연간 500만 달러 등 어려운 기준을 뚫고 이

5. KCC·KCC글라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8개부문 1위수상

KCC와 KCC글라스가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 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8개 부문에 1위로 선정됐다. 수상 부문은 KCC가 실란트, 수성도료, 유성도료, 천장재, 그라스울 등 5개 부문, KCC글라스가 PVC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 이션 필름 등 3개 부문이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해당 기업의 제 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와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 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로 소비자 의견 뿐 아니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기에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KCC·KCC글라스는 이번 수상으로 '최고의 품질 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6. KCC. 글로벌 기업으로의 비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KCC가 경영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19/20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KCC는 2015년부터 매해 국제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ISO26000,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에 따라 지속가능성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인수 등 주요 이슈 및 연결재무상태표, 사업현황 등 경영 일반 사항과 지속가 능경영체계, 윤리·준법경영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7, KCC, 사회적 책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

KCC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Korea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KCC가 속한 건축자재 업종의 지속가능성지

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도 KCC는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KCC는 이사회의 책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나타 내는 조직 거버넌스와 반부패, 공정경쟁 등을 나타내는 공정 운영관행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8. KAC, GM SOY상 6년 연속 수상

지난 3월, KAC가 제너럴모터스(GM)의 '2019 Supplier Of the Year(SOY, 올해의 협력사상)'를 수상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은 매년 전 세계 1차 협력사 2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개발, 가격, 납품 등 각 부문별 평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해 'GM SOY'를 시상해 왔다. KAC는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9. KCC건설 기업 홈페이지, 2019 앤어워드 수상

KCC건설 기업 홈페이지가 2020년 1월 한국디지털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 '2019 앤어워드(& Award)'에서 Construction / Architect 부문 최고상 'GRAND PRIX'를 수상했다. 올해 13회 째를 맞이한 앤어워드는 전체 64개 분야에서 출품작들을 대상으로 산업계

CEO, 외부 전문위원을 통해 이어지는 3단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지털 미디어 시상식이다. 2019년 '글로벌 건설 코리아를 주도하는 KCC건설'의 위상과 업역 홍보 채널로써 고객 중심 사이트를 만들어 브랜딩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로 변모하여 이룩한 쾌거이다.



10. KCC건설 스위첸 TV-CF '문명의 충돌'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수상

'일상 공감'이 낳은 '나'의 이야기로 큰 울림을 전한 KCC건설 스위첸 TVCF 캠페인 '문명의 충돌'이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 TV영상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CC건설 캠페인 '문명의 충돌'은 지난 7월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며 유튜브 조회수 3천5백만 부 돌파, 2천5백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부부가 된다는 것, 혹은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서로 다른 두 문명이 공존하기 위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부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며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집에서 가족과 보낸 시간이 길었을 올해, 이번 캠페인은 가족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의 가치라는 변하지 않는 핵심에 대한 10 여년의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은 스위첸만의 세대를 넘나드는 공간캠페인을 탄생시킨 위동력이 되고 있다

11. KCC, 코로나19 극복에 10억원 기부

KCC가 지난 2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KCC 회사 차원에서 기부한 5억 원을 비롯해 정상영 명예회장, 정몽진 회장이 각각 4억 원과1억 원씩의 사재를 출연해 마련됐다. 성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지원 봉사자와방역 인력 등을 위한 방호복, 마스크등의료물품 구매를 비롯해, 보육원과양로원 등 취약 계층과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쓰였다.





KCC KCC건설

제주도에 우뚝 세운 5성급 호텔의 자부심

제주조선호텔 신축공사 현장

제주도 관광의 중심인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KCC건설의 기술력으로 건설한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 신세계조선호텔의 고급 리조트형 호텔인 '그랜드 조선 제주'의 공사를 수주, 1년 4개월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청정 자연과 함께 제주도를 빛낼 이 호텔에 녹아 있는 현장 직원들의 땀과 열정을 함께 살펴보자.

동시에 진행된 신축과 리모델링

KCC건설이 건설하는 '그랜드 조선 제주'는 신세계조선호텔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5성급 리조트형 호텔이다. 제주도 남부의 관광 중심인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중문색달해수욕장·천제연폭포·여미지식물원 등 제주를 대표하는 유명 여행지를 편안하게 오갈 수 있으며, 5성급 호텔다운 최고급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이곳 공사는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1월 첫째 주 시숙을 거쳐 1월 8일 호텔을 오픈하

제주조선호텔 신축공사

- •위 치: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848번지 및 2785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11월(16개월)
- 공사규모 : 신축공사(지하 1층~지상 5층, 1개동 50객실), 리모델링공사(지하 2층~지상 4층, 1개동 221객실)
- 발 주 처 : 에스케이디앤디㈜

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죠. 이번 공사는 특이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켄싱턴 제주 호텔이었던 221 실 규모의 공간은 그랜드 조선 제주의 콘셉트와 서비스에 걸 맞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고, 50실 규모의 별도 공간으로 설계된 '힐 스위트' 건물은 새로 지었습니다. 이처럼 신축 공사와 기축 리모델링공사를 함께하는 호텔은 아마 찾아보기힘들 겁니다."

두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김환철 소장과 직원 14명은 그동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리모델링공사가 본격화된 올 4월부터는 양쪽을 수시로 오가며 공정 현황을 관리하느라 두 배로 힘들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예정대로 11월에 성공적으로 준공할 수있었다.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정

제주조선호텔 신축공사 현장은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 직선 거리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 특유 의 강한 바닷바람을 십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변화무 쌍한 날씨 변화와 풍속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타워크 레인을 설치하는 대신 이동식 하이드로크레인을 활용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설계 단계에서도 바람에 의한 풍하중을 충분히 고려해 구조 와 자재를 결정했습니다. 외부 커튼월을 설치할 때 층고가 높 은 지역에는 고정용 수평구조재를 설치해 강력한 바람에도 끄떡없게 만들었습니다. 창문도 풍압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 도록 강화된 복층유리를 사용했죠. 더불어 장마철과 태풍철 에 비바람이 내부로 들이치지 않도록, 올 초에 창문과 출입문 을 미리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재 수급 및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자재를 내륙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자재라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배송에 이상이



(윗줄) 이기섭 과장, 정주환 과장, 김환철 소장, 한라희 사원, 김일한 과장 (아랫줄) 서희원 사원, 박준범 사원, 성화석 대리, 유승민 대리, 이우구 과장

생기면 공사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 이에 직원들은 자재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그 결과를 발주처와 공유해 이상이 있을 시 곧바로 대체 자재를 선정·발주하는 등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덕분에 이곳 현장은 이렇 다 할 비상 상황 없이 전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완벽하게!

분양 후 입주자가 정해지는 아파트와 달리, 호텔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트렌드와 상황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이 상대적으로 잦을 수밖에 없다. 김환철 소장은 이에 대비하여 발주차운영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설계 어젠다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했다. 이곳에서 변경 확정된 설계안을 곧바로 적용함으로써 필요한 공사 기간과 여력을 확보할수 있었다는게 김환철 소장의 설명이다.

"더불어 공사 기간 내내 품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5성급 호텔'이라는 명성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시공 품질이 우수해야 하니까요. 인테리어 품질뿐만 아니라 외부 공사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시스템 비계도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전 공정을 매우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 업했기에, 전 세계 호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을 확보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주조선호텔 신축공사가 성공적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KCC건설은 '제주도 5성급 호텔 준공'이라는 빛나는 실적을 추가했다. 현장 직원들은 이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책임준공 기간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환철 소장과 직원들이 아직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고한목소리로 다짐하는 이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래를 그리는 우리!

성공적인 준공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김환철 소장과 직원들은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품질 수준을 끌어올려, 완벽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지난시간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을 맞아, 모두한 마음으로 반성과 계획의 시간을 가졌다. 김 소장의 포근한 마음이 담긴 충전식손난로 선물을 나눠갖고, 한 자리에 모인모두 각자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김환철 소장이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020년을돌아보며,2021년을그리다!



이우구 과정

화물 연대 파업등으로 현장 공정에 어려움을 미치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유관기관, 본사 지원부서, 현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애로 사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민 대리

타현장과 달리 인테리어 관련한 내용들이 좀더 상세하고 공사범위도 넓었는데, 좀더 자료를 모으고 숙지했었으면 지금보다 나은 품질을 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1년엔 아쉬움을 극복하고 좀 더 화기애애하게 근무하며 공사기간동안 직원들과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지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사원

현장 발령받고 5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공사진행 중 작업관련 못 본 것, 놓친 것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내년 목표는 다음 현장에 가서도 똑같은 아쉬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입니다.

한라희 사원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태풍과 강한 바람, 잦은 비로 인한 현장 안전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로서 근로 자 분들의 감성안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2020년 제주조선호텔현장을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새로운 현장에 가서도 무재해 준공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와 안타까운 재해가 없이 무재해 준공이 이뤄지 기를 바랍니다.





서희원 사원

제주도 지역 특성상 장비나 필요한 자재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 증류수통이 문제였는데요. 현장에서 다른 공종에 방해가 되다보니 200~300kg이나 되는 것을 계속 옮기느라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차차 종식되어서 코로나가 없던 시절처럼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매거진

전주1공장 PVC생산부 라미생산과

2020 제 1회 JSA(Job Safety Analysis) 발표대회편

전주1공장 PVC 라미 생산과의 JSA 발표대회 주제는 'PVC 생산 라미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위험지수 감소'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이들의 고민이 전사적으로 공감을 얻으며 큰 박수를 받게 된 것, 이들의 개선책을 카툰으로 만나본다.

전주1공장 PVC생산부 라미생산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 많다. 트렌드에 따라가는 신제품 개발이나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작업 현장의 안전 및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우선이다. 전주1공장의 PVC 라미 생산과는 지난 10월 16일 KCC 자체적으로 실시한 JSA(Job Safety Analysis) 발표대회에서 라미 공정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팀원김경태 대리



리더 이정선 조장



팀원 김상우 반장



팀원 유필수 사원



팀원 강용문 조장



^{팀원} 김독재 대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JSA 발표 대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JSA는 작업안전분석기법의 약자로, 각 공정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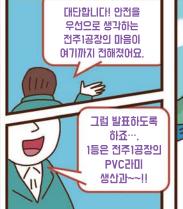














영업소 이야기 26

넓은 들판에서 꿈꾸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대전영업소 소장 성웅수 부장

대전영업소

힘겨웠던 2020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힘든 한 해였지만 대전영업소 직원들은 아쉬워할 틈도 없이 '다음'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토록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건 구성원들 모두 '기본을 지키지'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3 WIN, 고객 WIN 직원 WIN KCC WIN"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위너(Winner)들의 집합소 대전영업소의 모습을 살펴보자.

대전(大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곳은 예로부터 넓은 들판과 높은 생산성을 지닌 도시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중심이기도 하다. 지금도 15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자랑하며 대표적인 '소비 도시'로서 영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이토록 중요한 곳이기에 대전영업소도 일찍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시절인 1966년에 개소해 지금까지 KCC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 물론 높은 가능성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영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대전영업소 구성원들은 그 경쟁 가운데 '기회'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전영업소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승리하기 위한 대전략으로 '기본'을 내세우고 있다. 영업소 구성원들은 영업소장 성웅수 부장을 필두로 '3 WIN, 고객 WIN 직원 WIN



관리과 민정섭 차장, 조영재 사원, 임주현 사원, 김미현 사원, 박민호 사원, 김상하 대리

KCC WIN'을 슬로건 삼아, 고객의 요구와 KCC의 가치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함께 승리하자"는 영업인의 기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WIN'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기에 구성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중무장하여 영업 난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 함께 몸으로 부딪혀 극복해나가고 있다. 성웅수 부장은 "소통을 망설이면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담당자들은 맡은 자리에서 고객의 문제점을 발빠르게 캐치해 해결하고, 조금 더 큰 문제는 각과별로 소통해 풀어내고, 더 큰 문제는 유관 부서에 협조해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이슈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덕분에 대전영업소는 사무실에 한 걸음만 들어서도 말소리가 가득했다.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고객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대전영업소가 관할지역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비결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전영업소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하반기부터 영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과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대전영업소의 매출 비중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재과는 대전의 건설 경기 성장세가 둔 화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창호 부문은 유통 신규대리점을 개 설하고, 내외장재 부문은 현장 영업과 더불어 점내 마켓 셰어 를 늘리기 위한 밀착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례로, 올해 전사 협업을 통해 관내에서 가장 큰 보온재 거래 선의 점유율을 60%(2019년 20%)로 끌어올리는 큰 성과를 올 렸을 정도다. 또한 도료과는 현장 영업에 힘을 쏟아 신규개설을 다수 이뤄냈으며 특히 올 7월 대전 내 1위의 전문건설면허업체를 신규 거래선으로 개척해 4/4분기 및 2021년에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 그리고 영업소 내 물류센터에서 관리하던도료 창고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하는 이슈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배송시간 및 소통에 있어 기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안성공장 측과 협의하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건물론,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을 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대전영업소이기에 2021년에도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대전영업소는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낸 전사 영업소에 대전영업소 구성원들은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기본을 지키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본의 자세로써 대전영업소, 그리고 KCC가 '정상'에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도료과 백인철 사원, 유지언 사원, 강상규 과장, 공업직판1팀 오수환 대리, 리피니쉬영업팀 최종민 사원



건재과 유현종 대리, 이래연 대리, 김흥수 과장, 전동진 사원, 고민창 사원

Episode

꾸준한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전영업소 건재과 김흥수 과장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창호 영업 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전영업소에서 근무한 2년 가운데 '진 심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해드리고 자합니다. 대전영업소가 관리하는 지역이 많지만, 그 중한 군데 가 논산시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논산시에는 KCC창호 대리 점이 없었는데요. 2019년부터 논산 지역에서 신축 건설 현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지역이었지요. 여 러 대리점을 스캐닝하던 중 논산 지역 최대 유통대리점인 B업체 를 발견하고. "이곳을 우리의 거점으로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물론 영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B업체 사장님께서 기존에 유통하던 타사 메이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 었죠.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소에서 업 체까지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였지만, 관계 확보를 위해 매 주 수요일마다 고민창 사원과 둘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였죠. 꾸준히 방문하여 대화한 결과 업체 사장님이 과거 식품 담당 영 업사원이었다는 점과 상당한 애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 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업사원의 고충에 대한 대화로 아 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했고. '결정적 한방'으로 애견 간식과 애견 용품을 선물하였더니 처음으로 환히 웃는 사장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밀도를 쌓은 후 조금씩 제품에 대한 정 보 및 창호 샘플을 제작해 전달하고, 창호 견적 프로그램(마이 위) 교육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올해 9월에 KCC 창호 대리점으 로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꼬박 1년 동안 찾아가 관계를 쌓은 덕 이었죠. 최근에 사장님께서 "이 정도 정성이면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심 어린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고객의 얼 굴을 마주하면 언젠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업인의 기 본 자세이지만, 다시 한 번 그 기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 습니다.



"영업의 기본은 노력! 노력은 늘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오랜 관계의 힘이 가져온 신뢰의 성과

도료과 강상규 과장입니다. 저는 과거 대전영업소에서 근무 를 했었는데요. 2017년에 잠시 수원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 지는 2년이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쌓았 던 탄탄한 관계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마법을 발휘했던 일화 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대전에 있던 당시에, 제가 거 래를 하던 A업체가 있습니다. 2016년까지 그 업체의 KCC 점유 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었죠. 당시 인터넷 판매를 막 시작하 던 터라, 저희 측에서 판매를 지원해주면서 크게 성장해 신뢰 감 또한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서 발령이 나 자리를 옮 긴 사이에 여러 환경이 변화되면서 해당 업체 점유율이 50%까 지 하락하게 되었지요. 대전영업소로 돌아오고 나서. 과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다시 왔느냐" 는 반가운 표정에 안심했지만, 새로 거래하기 시작한 경쟁사 제품에서 다시 바꾸기는 어려웠는지 영업 성과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쌓아두었던 관계 덕분에 업체 사 장님의 일상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가 있던 게 포인트가 됐 습니다. 특히 늦둥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꽃과 아기용품을 선 물하면서 영업사원이 아닌 '친구'로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대리점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할수 없다'는 단정적 얘기보다 '해보겠다'는 말로써 최선을 다 하다 보니, 다시금 점유율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특히 올해 초 에는 KCC 인캔(In-can) 기기까지 설치하면서 50%까지 떨어 졌던 점유율은 현재 80%까지 확대됐습니다. 물론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관계 유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은 '끈기'로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도, 이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끈기가 필수이지요. 가 끔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영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Event

KCC 칭찬릴레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건재과

대전영업소 건재과가 초대되었습니다

KCC



이번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은! 대전영업소 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재과 입니다~ 지금부터 이번호 선물인 목도리 전 달과 함께 칭찬릴레이를 시작해볼까요?

유현종 대리



저는 전동진 사원을 칭찬합니다! 업무를 진행하 다 보면 당황할 때도 많을 텐데, 언제나 침착하 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에 저도 늘 배우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전동진 사원

저는 고민창 사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 습니다. 거래선이나 회사동료들을 대할 때 가 끔은 인상을 찌푸릴 법 한데,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저도 활력을 얻 곤 합니다.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 는고민창사원! 늘고맙습니다.

고민창사원



저는 김흥수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힘들고 부담이 많은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베테랑'의 품격이 멋집니다. 저도 언젠가 과 장님처럼 훌륭한 영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김흥수 과장



저는 이래연 대리를 칭찬합니다. 우리 대전영 업소의 멋진 소신쟁이! 거래처의 요청사항이 나 요구에 무조건 YES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인만의 업무 기준을 소신 있게 밀어붙이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언제나 흐뭇하고 든든 합니다. 선배 동료로서 언제나 멋진 이래연 대리를 항상 응원합니다.

이래연 대리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권재환 과장님을 칭 찬합니다. 건재과 과장으로서 권위만을 내 세우지 않으시고, 부하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를 기울여주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후 배들이 창의적으로 업무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시는 인자한 후견인 권재환 과 장님! 감사합니다.



대전영업소의 훈훈한 분위기는 구성원들의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요.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따스한 영업소 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KCC





김흥수 과장

이래연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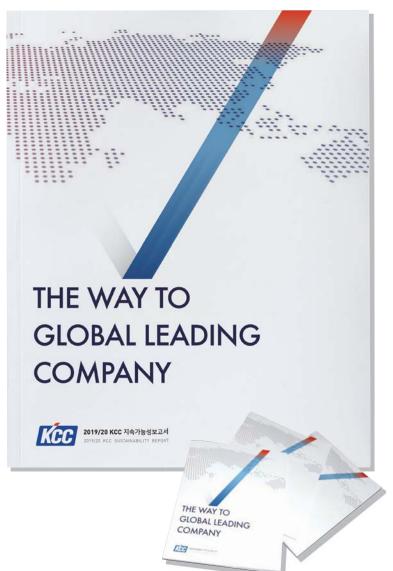
KCC ISSUE I 30

2019/20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 WORLD BEST에 오르다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최고 등급 수상

2019/20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0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플래티넘(Platinu

'2020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플래티넘(Platinum)을 수상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를 향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달려온 KCC의 노고를 세계에서 인정 받은 것이다.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 LACP 어워드 5년 연속 수상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 nications Professionals·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권위 있는 보고서 경진대회로 출판물, 영상, 온라인 홍보물 등 기업이 발간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는 12개국 500여 개 기업이 경합을 벌였다.

AWARDS SPOTLIGHT

2019/20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100점 만 점 중 99점을 획득했다. 총 6개 부문 중 전반적 인 내용, 디자인, 창의성, 메시지 정확성, 디자 인 적합성까지 5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KCC는 2015년부터 국제표준인 ISO 26000 및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작 성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 간하고 있다. LACP 주관 경진대회에서 2016 년 처음 골드(Gold)를 수상한 뒤로, 2017년과 2018년엔 플래티넘, 2019년 골드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차지하며 5 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10월 16일 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 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성 지수(KSI·Korean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보고서상(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수상한 바 있다.

2019/20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긴 비전

지난 8월 발간된 '2019/20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개요, 지속가능경영 전략, 지속가능경영 현황, 부록까지 4가 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 KCC 발전 및 성장의 비전 과 지속가능경영의 의지 및 현황이 실려있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사업 현황과 연결재무상태표, 경영 성과 등을 비롯해 KCC의 지속가능경영의 대전략으로 선정한 △안전·환경책임 강화 △인재 중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고객과 시장 지향 △공유가치 창출 등 5가지 활동의 현재 진행 과정 및 미래를 향한단기·중장기 목표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세한 수치와 깔끔한 표, 적절한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 보고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이 KCC의 투명한기업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끔 구성한게 특징이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 눈에 띄는 것은 KCC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늘리며,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은 매년 꾸준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안전교육 및 인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측면에선 R&D분야 투자 비용이 2017년 760억 원에서 2019년 832억원으로 72억원 증가했고, 그 결과 특허/실용신안출원에서 2017년부터 매해 200건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증진하는 KCC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마인드로 글로벌한 신뢰와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큰 성과를 내온 KCC는 앞으로도 꾸준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20 KC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지

美 LACP 수상 내역



KCC는 2015년부터 국제표준인 ISO 26000 및 GRI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LACP 주관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KCC ISSUE Ⅲ 3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품질

KCC·KCC글라스 KS-QEI 시상식 8개 부문 1위

KCC와 KCC글라스가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며 '최고의 품질'을 인정 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걸어온 덕분에 이룩한 성과다. '최고'로 공인 받은 KCC·KCC 글라스의 제품 면면을 살펴본다.

'KS-QEI1위'KCC·KCC글라스제품들



KCC 코레실, 실란트(실리콘) 부문 9년 연속 1위

KCC코레실은 국내 최초로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를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친환경성 및 품질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포스코 파크원 타워 등초고층 건물 시공에 사용되는 등 국내 실란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고,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시티 현장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KCC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 수성도료 부문 6년 연속 1위

최근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편하고 안전한 페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CC '숲으로'는 이 제품은 색상 구현력이 우수하다는 점은 물론, 유해물질 함유 및 방출량을 최소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서' 획득,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HB마크)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클로버 다섯 개를 획득했고, 내수성, 내산성, 알카리성, 방균 기능 등도 고가의 수입도료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 성능을 증명했다.



KCC 유성 페인트 유성도료 부문 6년 연속 1위

KCC는 방수도료, 바닥 에폭시도료, 다용도 우레탄 상도 등 유성도료 제품에서 탄탄한 라인업을 갖추며, 오랜 시간 동안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시리즈는 화재시에 철골 보호 및 유해가스 최소화에 강점이 있다. 더불어 차열도료 '스포탄상도에너지'는 최근 전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며 관심을 끌고 있다.



KCC 천장재 '석고텍스 PLUS', 석고텍스 천장재 부문 4년 연속 1위

KCC '석고텍스 PLUS'는 석고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마감성과 우수한 가공성을 활용한 제품이다. 내장재가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인 불연성과 시공성면, 특히 친환경 및 안전성을 잡아 최근의 소비트렌드인 '가안비(안전성 추구)'와도 맞닿아 있다. 환경표지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HB마크 최우수 등급, 아토피 안심마크를 보유해 유해물질 우려를 최소화했고, 'KS F ISO 1182' 및 'KS F 2271'의 불연재 성능 합격기준을 만족하는 화재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KCC·KCC글라스, KS-QEI 8개 부문 1위 수상

KCC와 KCC글라스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 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8개 부문에 1위로 선정됐다. KCC는 실란트, 수성도료, 유성도료, 천장재, 그라스울 등 5개 부문, KCC글라스는 PVC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이 션 필름 등 3개 부문이다.

KS-QEI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와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

여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소비자 의견 뿐 아니라 전문가 평가도 반영돼 신뢰성이 높은 지수다. 이런 까다로운 평가에서 KCC는 실란트 부문은 9년 연속, 수성도료 및 유성도료 부문은 6년 연속, 천장재 부문은 4년 연속, 그라스울 부문은 2년 연속 1위 수상 쾌거를 이뤘고, KCC글라스는 PVC바닥재 부문에서 11년 연속, 저방사유리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데코레이션 필름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했다.



KCC 친환경 단열재 '그라스울', 그라스울 단열재 부문 2년 연속 1위

KCC 그라스울은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단열재'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라스울을 만들 때 활용되는 '페놀' 수지가 아닌,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Free라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옥수수에서 추출한 100% 천연 오가닉 바인더를 활용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Zero를 보장하는 '10년 친환경 보증' 시행, 아토피 안심마크 획득 등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최고의 건축 단열재로 각광받고 있다.



KCC글라스 주거용 바닥재 '숲', PVC 바닥재 부문 11년 연속 1위

KCC글라스의 친환경 주거용 바닥재 '숲'은 국내 최초로 주거용 바닥재에 편백나무 오일을 첨가해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했고, 미끄럼 방지기능(Non-Slip)과 향균 탈취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 층간 소음 저감 효과를 지닌 '숲 소리순' '숲 소리휴',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숲 그린 편백', 늘어나는 펫팸족을 겨냥한 '숲 도담'까지 고객의 니즈를 저격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KCC글라스 에너지 세이빙 유리, 저방사유리 부문 4년 연속 1위

KCC글라스의 '에너지 세이빙 유리'는 뛰어난 코팅 기술로 더 투명하면서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냉난방비를 절약해주는데 탁월한 최고의 제품이다. 특히 '이지스(EGIS)' 코팅유리는 잘 손상되지 않는 하드로이 유리의 장점과 단열 성능이 우수한 소프트로이 유리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코팅 유리로, 2014년 출시 이후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KCC글라스 비센티, 데코레이션 필름 부문 1위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건강 친화형 주택이 주목반고 있다. KCC글라스는 이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자재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코레이션 필름 비센티(VICENTI)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 및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인체 무해성을 인정받았다.

슬기로운 DIY 생활 38

소품 하나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Up!

가슴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연말'이 찾아왔다. 연말에 느껴지는 기쁨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덕분이 아닐까.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12월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오늘은 월 행잉 DIY에 도전해보자.





산라도 놀러오고 싶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윌 행잉 만들기!

그 외 기본 공구들



홈씨씨에서 얇은 목재와



준비한 목봉을 줄톱을 이용해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준다. (자르고 난 단면은 사포를 통해 정리해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목봉의 길이에 맞춰 적당한 개수의 고리형 나사를 박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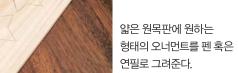


면로프를 목봉 양쪽에 묶어준다.











그려준 오너먼트를 직소기 혹은 줄톱을 사용해 잘라준다. (조각의 절단면도 사포를 이용해 잘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오너먼트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숲으로멀티멜 백색을 활용해 깔끔하게 칠해준다.



흰 페인트가 마르면 그 위에 다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붉은 페인트를 칠해 빨간 모자



페인트가 마르면 드릴을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준다.



10.

두꺼운 종이로 산타 수염을 만들어 목공풀로 가볍게 붙여준다.



실을 이용해 오너먼트를 걸어 주면 완성~! (취향에 따라 목봉에 드라이플라워나 리본을 만들어주면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산다클로스가실존했다고?

어린 시절 우리들은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하 지만 사실 먼 옛날 4세기, 동로마 제국 미라 지방(지금의 터키)엔 산타클로 스가 실제로 있었다. 그의 정체는 대주교 성 니콜라오스로, 그는 너무 가난 해 팔려갈 위기에 처한 세 자매의 집 창문 너머로 몰래 황금을 넣어주었다 고 알려져 있다. 그의 선행을 기리며 12세기 수녀들은 12월 5일 가난한 아 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Saint Nicolaus(성 니콜라오)의 이름이 변주돼 Santa Claus(산타클로스)가 됐다.

트렌드 백과

코로나블루 이젠 안녕~ 실감콘텐츠로 문화생활 업그레이드!

5G, VR, AR, 홀로그램 등 다양한 4차산업 기술이 사회 곳곳에 적용되며, 신선한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에 적용된 '실감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화생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구원투수로 등장한 실감콘텐츠의 면면을 살펴본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실감콘텐츠'

어린 시절 안경에 셀로판지를 붙인 3D 안경을 착용해본 경 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조악한 안경을 쓰고 동화책 속 그 림을 3D로 감상했을 때 그 비주얼은 아직도 신기하게 남아 있을 터. 이 기억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간은 콘텐츠를 감상 할 때 '실감도'를 중요시 한다. 최근 여러가지 '실감콘텐츠 (immersive content)'가 4차산업의 바람을 타고 문화계 전반 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다.

실감콘텐츠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를 뜻한다. 지난 9월 제주에 문을 연 '아르떼 뮤지엄'이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끈 데 이어, 최근 AR(증강현실), 홀로그램도 발전하

며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람과 기술 사이의 교감을 이 루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3G, 4G 인터넷에서는 용 량, 속도 문제로 한계가 있었지만, 5G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 실감나게 작동이 가능해지며 지난 해부터 빠르게 실감콘텐츠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아 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감콘 텐츠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높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 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AR 등 실감콘텐츠 산업이 비약적 성장을 일궈낼 것"이라고 전망했 다. 과연 어떤 실감콘텐츠들이 대중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KT-Live on 360



이동통신사 KT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4K 고화질 실시간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 프로농구 KT 소닉붐의 경기를 360도 VR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쪽 농구 골대 백보드와 중앙의 중계부스에 VR 카메라를 설 치해, 마치 실제 농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생동 감을 전한다.

SKT-창덕이리랑 🚟



SK텔레콤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창덕 아리랑(ARirang)'을 출시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고궁 관람을 가능케 했 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작동시키면 '해치'가 나타나 금천교, 인정전, 희정당, 후원 입구 등 창덕궁 내 12개 관람 구역을 안 내해준다. 휠체어를 탄 관람객에게는 계단이나 문턱이 없는 코스 중심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실감영상관



지난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선 디지털 실감영상관이 열렸다. 문화유산에 디지털 영상 및 증강현실 기술을 입혀 실감콘텐 츠로 재현해 눈길을 끈다. 북한에 있는 '안악 3호 고분' 등 고 구려 문화를 재현하거나, 조선 시대 예술품 '태평성시도'를 8K로 구현해 실제로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빛소프트-런데이



한빛소프트는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활용한 가상마 라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장 소에서 달리면서도 한날한시에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는 버 추얼 레이스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혼자 뛰고 있지만 다른 사 람들과 함께 뛰는 경험을 제공하는 AR 서비스로, 실제 대회 도 이루어지고 있다. IoT를 활용해 부정을 잡아내는 등 공정 성을 확보해, 차세대 마라톤 경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언스 42

버려지는 에너지도 다시보자!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에너지도 재활용하자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시대의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살펴보자.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간다. 단순히 전 기를 아끼자는 캠페인성 논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동할 때 내 딛는 걸음에서 발산되는 압력에너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 갈 때에 생기는 진동에너지, 산 너머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 와 같은 일상 속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은 이렇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 너지 기술이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



중력 에너지

하베스팅은 최근 친환경 바람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일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안정성 및 지속성, 환경성에 대한 가능성 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무선센서, 마 이크로 로봇, 헬스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인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투자와 개 발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IDTechEX에 따 르면, 2020년 세계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규모는 2020년 43억 7.00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약 52억 8.070만 달러까지 성장 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KCC 김천공장의 공장 폐열로 전기를 만드는 모습



에너지 하베스팅의 적용 사례

에너지 하베스팅은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화 돼 있는 것은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을 수집하는 태양전지와 수력발전소 방수구 등에 설치돼 위치에너지를 이 용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을 이용하는 열전소자, 진동 및 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압전 소자. 공중의 전자기파를 모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RF 방 식 등 폭넓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에 적 용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전력회사 페이브젠은 2014년 영국 12개 학교에 압전소자를 이용해 전력 생산이 가능한 마루 타 일을 설치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걸을 때 전기가 생산되는 시 스템을 구축했고, 일본 도쿄역,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클럽 등에는 승객들이 밟고 지나가는 압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계 단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KCC도 POSTECH과 협력 하여 KCC 김천공장에 무기단열재 생산에서 발생하는 폐열 을 회수해 다시 전기에너지로 활용하는 열전모듈 기반 에너 지 회수 기술로 에너지 하베스팅을 시도하고 있다. 대형 공장 에 열전발전 실증 실험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이기에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속속 등장하 면서 신체의 열에너지 및 와이파이 등 전파에너지를 모으는 기술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 기술들도 곧 실용화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유데, 조만간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편리 하게 기기를 이용하는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에너지 하베스팅, 상용화 위해 극복해야 할 점

이처럼 에너지 하베스팅은 앞으로 활용성에 대해 큰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 기본 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선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주위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수확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셋째, 주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을 때를 고려해 저장소를 키 워야 한다. 넷째, 사용 가능한 적용전력을 에너지 하베스팅 입 력 전원에 맞춰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첫째 사항에 대한 발전은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아직 발전이 더디다. 예컨 대 사람과 기계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압전소자는 전기를 만 들수 없고. 열전소자의 경우 폐열 회수 시스템을 제외한 인체 및 기계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기에는 변환 효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변환 효율성과 에너지 저장성이 떨어지고, 기기의 요구 전력이 높다는 점이 아직까 지는 상용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하지만 이 분야 에 뛰어든 연구자가 많아지면서 해결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 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가까운 미래 에 등장할 스마트시티에도 꼭 필요한 기술로써 활약할 그날 을기대해 보자.

띵동~

감사 메시지 😕 배달왔습니다!

매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추운 겨울이 돌아왔다. 특히 이 시기엔 한 해가 끝나간다는 아쉬움에 몸은 물론, 마음까지 추워지기 십상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몸을 데워주는 주머니 속 손난로와 마음에 훈풍을 불어 넣어 줄 따스한 '감사'의 한마디, 12월호 사보에 KCC그룹 임직원들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To. 이상은 간호사(본사인사림)

제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은 다름 아닌 이상은 간호사님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가장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자세히 답변 주셨습니다. 덕분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회사 전체가 마음을 다잡고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From. 김서희 대리(교육훈련팀)

코로나 사태로 1년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업무를 예 전처럼 할 수 있도록 방역 및 개인 건강에 여러가지로 큰 도움을 주고있지 요. 사내의 철저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 process에 더하여 이상은 사원의 적극적이고 본인 일처럼 직원들의 건강을 살피는 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From. 김철규 차장(중앙연구소 Metal기술팀)

To. 이시환 차장(본사 해외선박영업팀)

해외선박영업팀 선박수주Unit장 이시환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선주사를 상대로 선박도료를 판촉하고 수주 하시느라 눈코 뜰 새없이 바쁘시지요? 코로나19 로 해외로 출장을 가지도 못하셔서 힘드셨을 텐 데, Agent 활용과 전화, 이메일, 화상 통화 및 회 의를 통해 올해도 수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해외와의 시차 때문에 저녁시간에도 휴일에도 불철주야 고 생한 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From, 손준형 차장(본사 선박영업팀)

To. 이효상 차장(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대죽1공장 이효상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 다. 지금은 제가 울산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차장님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작년 신입사원 입사 후 타지에서 힘들어하 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부터 업무 프로세스까지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위 태로웠던 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고 지금도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선배로써 모범이 되시는 이효상 차장님께 감사합니다!

From. 안재성 사원(울산공장 도료생산부)

To. 김봉석 부장(전주3공장 공무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마치 예수가 홍해를 가르듯 일을 분담해주시고 공장 안전 관리를 하는데 있어 신선하고 알찬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고 공장 안전관리에 많 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공장 안전관리자로서 공무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From. 최재식 대리(전주3공장 안전환경부)

To. 박기주 과장(전주2공장 분체기술림)

올 한해 내수 분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기술부/생 산부/영업/TSD 유기적인 협업활동을 통해 무사히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도전 속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회사 제품을 보급함 에 있어 고생이 많으신 전주2공장 분체기술팀 박기 주 과장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묵묵한 서포터 덕 분에 한해 농사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From, 김재필 대리(안산출장소 공업직판1팀)

To. 김형선 부장(전주2공장 서무부)

신입사원 시설 항상 잘 챙겨주시던 전주2공장 김형선 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싶습니다. 입사 후 첫 회사생활을 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던 신입사원들에게 동네 형처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며 챙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자 리도 마련해 주셨으며 전반적인 회사생활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부장 님 덕분에 빠르게 회사생활에 적응 할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애사심을 가지고 회 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최재식 대리(전주3공장 안전환경부)

To. 최수연 과장(중앙연구소 해외실리콘팀)

지난 18개월간 열의를 다해 개발한 제품이 올해 7월에 첫 발주를 받게 돼. 공장의 소형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해야 했죠.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보 지 않은 설비였다는 게 문제였죠. 해당 설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최수연 과 장에게 첫 시험생산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죠. 팀도 다르고 본인의 업무 가 아님에 불구하고 대죽2공장까지 동행하고 생산도 직접 같이 동참하여 주었답니다. 그러한 배려가 씨드(seed)가 되어 9월부터는 대형 설비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10월에는 7톤을 넘게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From, 서승광 차장(중앙연구소 유무기복합연구팀)

To. 이구일 과장(KCC건설 법무팀)

올 6월에 입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신규 프로젝트 법률 검토와 조언을 받을 일이 많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성의 있고 합리적인 논거로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어서, 발주처 와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 한 이구일 과장님 감사해요 ^^.

From, 이준환 차장(KCC건설 개발1부)

To. 유지언 사원(대전영업소 도료과)

영업사원 이미지를 확 바꾸어 준 유지언 사원! 지 난 6월 경 공장에서 고객 니즈차 대리점 방문시 동 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 식과 이해도로 고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전하는 유 사원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더불어서 공 장과의 소통에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는 상대방 입 장을 고려하는 마음이 참 예뻐요! 지면을 빌려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From. 박제규 과장(안성공장 관리부)

To. 박혜진 사원(대죽1공장 관리부)

회사에 여직원의 수가 적어 입사 초반에 적응을 어려워했던 저 에게 먼저 손 내밀어 살갑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업무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모르는 걸 여쭤보면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매 일 감동의 연속입니다.

From, 박현진 사원(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연말연시 연하장 작성

글. 케빈 경(〈비즈니스 영어회화 표현사전〉 저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긴 연하장은 우리의 일상을 따스하게 만든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력을 위해선 내 마음을 전하는 연하장을 바르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크리스마스 및 새해 인사 Tip! 인사와 감사에 집중한다

크리스마스 및 새해 인사에서는 우선 축하 인사로 시작한 후 상대방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과도한 회사홍보나 영업용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을 보낼 때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을 보낼 때 모두 사용하는 표현은 비슷하다.



이메일 샘플

Subject Seasons Greetings from All of Us at KCC

(A) We at KCC wish you a very Merry Christmas!

(B)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continuing support.

(C)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gain next year.

KCC 임직원이 계절 인사를 전합니다

KCC 임직원 모두 귀하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귀하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귀하와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분별 다양한 표현

(A1) 크리스마스 인사만 할 때

Christmas라는 단어만 넣어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다. 위 샘플처럼 회사 자체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간단한 표현만 써도 크리스마스 인사로 충분하다.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very Merry Christmas.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his is a short note to say we're thinking of you this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맞아 저희가 귀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전갈을 드립니다.

(A2) 새해만 언급할 때

New year이라는 개념에만 집중을 할 때도 표현은 간단하다.

Happy New Year!

즐거운 새해가 되세요.

Best wishes for the coming new year.

좋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We wish you a wonderful new year!

멋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3)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를 함께 할 때 1

크리스마스 인사와 새해 인사를 각각 따로 하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경우도 작다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즐거움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즐겁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A4)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를 함께 할 때 2

크리스마스 대신 season이나 holidays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영어에 능통해 보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Season's greetings!

계절 인사를 전합니다!

Best wishes during this holiday season!

이번 연휴에 복 많이 받으세요!

We wish you a wonderful holiday season.

멋진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B) 감사 표현

상대방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고마움도 함께 언급한다.

We thank you for your business.

저희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s been our pleasure working with you this year.

올해 함께 일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As we look back over the year, we are reminded of the special customers like yourself who have made this year a success for us.

47

금년을 뒤 돌아보면서 올해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귀하 같은 특별한 고객을 떠올리게 됩니다.

(C) 금정적인 마무리

계속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다른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relationship next year.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I will be contacting you again very soon.

곧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권의 주요 기념일에 대한 인사

Happy Thanksgiving!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세요!

Have a great Labor Day weekend!

멋진 노동절 주말을 보내세요!

Happy Four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Happy Easter!

즐거운 부활절을 보내세요!

Happy Halloween!

즐거운 할로윈을 보내세요!

Have a great time with your family.

가족과 멋진 휴일을 즐기십시오.

주기율표 48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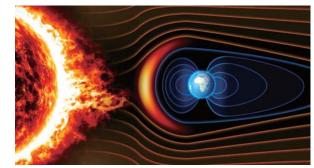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금속이 바로 '철'이다. 우리 산업계는 물론 문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마치 밥상의 쌀처럼 대체 불가능하기에 '산업의 쌀'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다. 〈주기율표〉는 KCC의 주요 원소들의 이야기를 매호 시리즈로 알아보는 칼럼입니다.





막대 형태로 가공된 철

지구의 핵 속 철이 만드는 자기장은 태양풍과 방사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지구의 시작과 함께한 '철'

철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질인데, 우리 은하의 물질 중 철의 비중은 질소보다도 많은 0,109%이다. 우주에 떠다니던 무수한 양의 철은 지구가 만들어지던 45억년 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먼 옛날 지구가 소용돌이 치는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시행성계 원반에서 점차 응집돼지금의 형태를 갖추어갈 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자연스레 가운데로 모이며 내핵과 외핵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도 지구의 전체 질량에서 철이 차지하는 비중은무려 32%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동하고, 지금껏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철 덕분이다. 내핵과 외핵을 구성하고 있는 철은 자기를 띠게 돼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했고, 그 자기장이 지금도 태양풍과 방사선을 편향시켜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시작이자 현재'

철은 인류 문명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현존하는 가 장 오래된 철기 유물은 기원전 3500년경 고대 이집트 시대 의 철 구슬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철의 원료인 철광석을 제련한 게 아니라 운석에서 채취해 소량만 이용됐던 것으 로 추정된다. 본격적으로 철을 생산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 1500년경의 히타이트 왕국(지금의 터키)이었다. 인위적인 바람을 활용할 수 없었던 히타이트 사람들은 자연풍을 이용하여 불씨를 키워 단단한 철을 제련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 농기구 등에 철을 활용하였다. 히타이트가 철기를 이용해 드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후, 철기 제조기술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인류는 청동기 문명을 끝내고 '철기 문명'에 진입하게 됐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 사였다. 전성이 좋고 연한 연철(탄소 함량 0~0.2%), 매우 단단한 강철(탄소 함량 0.2~2.1%), 그리고 주철(탄소 함량 3.7~4.3%)까지. 그 성장의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다 히타이트 왕국의 철 이후로 3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700년대 영국에서 제철업자 다비(A.Darby)가 코크스(석 탄을 가공한 고순도 탄소 덩어리)로 용광로의 온도를 획기 적으로 높이면서 질 좋은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철 제 련이 수월해지면서 제1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쐈다. 그 이 후부터 지금까지도 철은 산업의 중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전 세계 금속 생산량 90%! 모든 산업의 뿌리

철은 지각에 약 5% 정도 함유돼 있어 모든 원소 중에 산소, 규소, 알루미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존재한다. 철은 대개 여러 광물에서 다른 원소와 결합된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철이 다른 원소와 결합 됐을 때 안정성을 띠는 성질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전세계 금속 생산량의 90% 이상이 철을 활용한 합금일 정도로, 각종 기계와 부품, 자동차, 선박, 건물 구조물 등 산업 전반과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아도, 철혹은 철합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몇몇 전문가들은 '인류는 아직 철기시대'라고 말할 정도이다.

더불어 철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산소와 접촉하면 쉽게 녹이 슨다는 것(산화작용)이다. 과거에는 단점으로 여겨졌던 특징 이지만, 화학이 발전한 지금은 철 특유의 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철은 산화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위 다른 물질의 환원 작용(산화의 반대 현상)을 일으키며 촉매와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버-보쉬(Haber-Bosch) 공정을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이나,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공정에의한 합성 연료 제조와 같은 여러 화학 반응의 기본 재료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지구의 탄생부터 인류의 진화, 산업의 발전을 함께 해온 철. 과연 철의 쓰임새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기대해보자

50



KCC·KCC글라스, '2020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개최

KCC 및 KCC글라스가 한국실내건축가협회 (KOSID)와 공동 주최한 '제32회 2020 대한민국 실내 건축대전'의 시상식이 11월 7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 터에서 개최됐다.

KCC는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건축 디자인 분야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돕기 위 해 2010년부터 11년째 메인 후원사로서 KOSID와 대 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 초 KCC에서 분사한 KCC글라스도 후원사로 참여했 다. 이번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10월 1차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심사, 2차 접수 및 심사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됐다. 총 210개 응모 작품 가운데 1, 2차 심 사를 거쳐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 려상 19점, 특선 28점, 입선 52점 등을 선정했다. 대상 작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에게는 있다. 상장 및 상금 300만 원을 수여했으며, 나머지 수상자

들에게도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는 작품명 '물 齋(재)'를 출품 한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이병철, 장동혁, 최민성 학생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작은 쌀을 단순한 식재 료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과 미래 친환경 자원 으로 제안해 쌀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프로젝 트를선보였다.

한편,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은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능하며 참 신한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건축 디자인 행사로 꼽힌 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 고 디자이너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신인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홍보광고팀 안상욱 대리



KCC. 건축자재 지원 함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

KCC가 친환경 건축자재를 지원한 함안 아동센터가 지난 10월 준공을 마치고 11월 6일 개소식을 열었다. KCC는 희망TV SBS 와 함께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옥천, 영양, 함안 지역에 들어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필요한 친환 경 건축자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완공된 함안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KCC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친환경 사 회공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다.

지역아동센터가 개소한 함안군은 농어촌 지역이지만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맞벌이 가정이 많고 군부대 이전에 따 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더불 어 결혼이민자의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녀 교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함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보호, 교 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의 건전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업성취 능력 향

상 및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 2층, 연면적 266,59m²로 건립된 센터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센 터를 함안군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함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석고보드,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방염도료 화이어아웃, PVC창호 등 KCC의 친환경 고기능성 자재들이 적용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 내는 실내 공간인만큼 KCC의 친환경, 고효율 자재를 통해 안 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제공된 제품들은 대 부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다.

KCC는 향후에도 단순한 기부 차원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SV(Creating Shared Value)활동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홍보광고팀 이다솜 사원



KCC,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 열어

KCC가 1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는 KCC가 올한해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함께 진행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인 '온(溫)동네 숲으로'의 성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축하하며주민공동체간 소통을 나누고자 마련된행사로, 100여명이참석했다.

이날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는 KCC의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로 칠해진 벽화를 배경 삼아 버스 킹 공연과 시화전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장 곳곳에서 발열 확인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마을 축제를 즐겼다. 또한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온(溫) 동네 숲으로 사업이 잘 표현된 마을 영상을 선정하는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영상 공모전' 시상 식도함께 진행됐다.

KCC는 지난 3월 관련 단체들과 사업 논의 및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벽화그리기 활동과 더불어 페인트, 창호, 보온단열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지원해 노후 주택을 개선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까지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CC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52

KCC, 바닥용 인테리어 페인트 '유니폭시 마블' 출시

KCC가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바닥용 칼라 에폭시 바닥재 '유니폭시 마블'을 출시하며 건축용 인테리어 페인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유니폭시 마블은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바닥용 칼라 페인트다. 에폭시 페인트 특유의 단단하고 매끈한 외관을 형성하며, 펄 안료를 적용해 다양한 문양과 색감으로 세련된 공간을 완성한다. 공간 내 조명에 따라 바닥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카페, 전시관 등 다양한 공간에 많이 쓰일 것으로기대된다.

페인트 색상은 총 16가지로 원하는 실내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도장 작업자의 터치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운영 색상은 쉬머 펄, 골드 펄, 로얄 골드, 실버 그레이, 러스터 블루, 바이올렛, 옐로쉬 그린, 핑크 실버, 레드 브라운, 와인 레드, 루틸 실버, 실버 펄, 라이트 옐로우, 글리터 블루, 글리터 골드, 실버 블랙 등이다.

유니폭시 마블은 내구력, 방진성, 내황변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장 후 오래도록 초기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페인트 도장 시 우수한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자체 평활)으로 작업성이 좋아 건축·건설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광고팀 김학범 과장



울산공장 이원균 사원, 소방의날 '소방청장 표창장' 수상

울산공장 물류관리부 물류센터 운영과 이원균 사원은 제58주년 소방의날에 소방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6년 입사한 이원균 사원은 울산물류센터에 입사하여 현재 도료출고관리 물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물류 업무 외에도 위험물 기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울산 물류센터 위험물(도료창고) 관리자로 법적 선임돼 물류센터위험물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올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많은 인재가 일어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소방특별조사팀을 통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및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울산물류센터도 두 차례의 점검을 받았지만 지적사항 및 법적 위반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같은 성과에 울산 중부소방서는 울산물류센터 위험물관리자인 이원균 사원에게 제58주년 소방의날을 맞이하여소방청장 표창에 추천을 하여상을 수여했다.

이원균 사원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KCC울산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공장 물류관리부 박종근 대리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394-15외 5필지) 신축공사 수주

KCC건설은 '카임17호펀드'에서 발주한 인천시 서구 원 창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1층 ~지상12층 1개동, 총 연면적 59,684평의 물류센터 신축사 업으로 총 도급공사비는 1688억 원이다.

당 물류센터는 남청라IC와 인접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 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여 서부 수도권 물류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기존 국내 최대 규모인 원창동 물류센터(391-9외 5필지) 수주에이어 금회 물류센터(원창동 2차) 수주로 물류센터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CC건설 개발1부 홍문기 사원

KCC건설,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2단계) 수주

KCC건설은 지난 10월 21일 포천시에서 발주한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2단계)'를 수주했다. 총 공사비 203억 원 중 당사분은 103억 원(51%)이며, 환경시설관리㈜(49%)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했다.

이 공사는 약 36개월동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동교리 일원의 오수관로 25.95km를 신설하고, 1,071가 구의 배수설비를 개선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포천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증대, 방류하천의 수질개 선 및 지역주민 공중보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KCC건설 공공사업부 김성민 사원

우체통

Quiz

이번 호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가벼운 퀴즈를 통해 당신의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아래 QR코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① 2020년 KCC의 빛나는 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KCC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동시 수상했다.
- ② KCC건설 기업홈페이지는 '2019 앤어워드'에서 Construction / Architect 부문 최고상 GRAND PRIX'를 수상했다.
- ③ KCC건설 스위첸의 TVCF 캠페인의 이름은 '문명의 복용합'이다.
- ④ KCC는 지난 2월 28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 ③ KCC 선박용 방청도료와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세계일류상품'에 11년 연속 선정됐다.

② 2019/20 KCC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0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Platinum을 수상했다.
- ②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15년부터 국제표준인 ISO 26000 및 GRI 작성 기준에 따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③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보고서상을 수상했다.
- ④ 보고서 내에는 2019~2020년 사업 성과는 들어있지 않다.
- ⑤ 보고서 서문 'Chairman's Message'에는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정몽진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③ KCC와 KCC글라스는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8개부문에 1위로 선정됐다. 다음 중 KCC·KCC글라스가 수상한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항목이 아닌 것은?
 - ① 수성・유성 페인트
 - ② 천장재 석고텍스 PLUS
 - ③ 친환경단열재 그라스울
 - ④ PVC바닥재
 - ⑤ 고강도 플라스틱

KCC 유튜브 Quiz!

KCC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콘텐츠를 보고 답해주세요!

4 최근 KCC 유튜브에 유명 웹툰작가 기안84가 출연하여 KCC의 주가폭등을 기원하는 멋진 벽화를 선보였다. 벽화 그리기에 사용된 페인트 는 KCC 숲으로()이다. ()안에 들어갈 말은?



12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QR코드 주소 http://kcc.zins.co.kr/poll.html 메일 주소

메일 주소 sabo@kccworld.co.kr



∢KCC
Youtube

KCC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ccstory

KCC Blog blog.kccworld.co.kr/

지난 호 정답

1. ⑤

2. ②

3. ⑤

4. 우레탄

지난 호 퀴즈 정답자

KAC 총무팀	장종수	사원
본사 공업직판2팀	심재일 :	과장
울산공장 생산관리부	김용환	사원
문막공장 품질보증팀	윤종 학 :	차장
KCC건설 법무팀	김정동	사원
본사 재정부	신승훈	사원
중앙연구소 유무기복합연구팀	윤민규 .	사원
수원영업소 건재영업팀	이상록 .	사원
KCC건설 상생협력동신축공사-공사과	권병구	대리
KCC글라스 상품구매팀	정유종	대리

국내 사업장 주재기자

본사 안상욱 대리 | 중앙연구소 구본민 사원 | 공 장 가평 김인규 대리 | 김천 하태용 사원 | 대죽 송아름 대리 | 문막 장효식 대리 | 세종 홍슬기 사원 | 이산 강해리 사원 | 안성 강민중 대리 | 여 주 한정훈 대리 | 여천 박재현 과장 | 영월 정경 수 사원 | 울산 박우진 대리 | 전주1 권대균 과장 | 전주2공장 서승우 사원 | 전주3 강의민 사원 | 영업소 경기북부 김희은 사원 | 광주 박형서 사원 | 당진 최혜진 사원 | 대구 이민서 사원 | 대 전 김상하 대리 | 목포 조영관 과장 | 부산 김정 후 사원 | 성남 전성배 대리 | 수원 박예진 사원 |순천 허경미 사원 | 울산 정민 대리 | 원주 장 은비 사원 | 인천 양대선 대리 | 전주 김태경 대 리 | 천안 오정균 대리 | 청주 원혜실 사원 | 포항 조재훈 사원 | 계열사 KCC글라스 박훈 과장 | KCC건설 김준석 대리 | KAC 이성엽 사원 | 금 강레저 윤두한 사원

해외 사업장 주재기자

KCC BASILDON (영국) 김형욱 부장 | KCT (터키) Suna Ozgen | KCK (중국 곤산공장) Zhou Na | KCK (중국 상해영업소) Jia Li Fen | KCB (중국 북경공장) Li juan | KCB (중국 북경영업소) Tian juan | KCG (중국 광주공장) Qiu heng jin | KCG (중국 광주영업소) 한은실 | KCV (베트남) Duong Kim Ngoc Son | KCM (말레이시이) Kenneth Lee | KCS (싱가포르) 김재성 과장 | KCI (인도) A Saravanan | KCID (인도네시아) 송성호 차장 | KCC Europe (독일) 김형욱 부장 | KCC UAE (아랍에미리트) 윤성환 차장 | KCC JAPAN (일본) 라윤미

함께하는 걸음

(KCC) KCC

다 함께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코너〈함께하는 걸음〉. 12달 동안 제시되는 캠페인 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열두 번째 주제는 '감사 인사 생활화' 입니다.

감사합LIC!!

KCC_감사를 생활화 합시다

#댓글로ㄱㅅ는그렇게치면서

#말로는_왜_부끄러워_하시는지

말 한마디가 만드는 행복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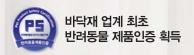
선화 끊기전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삭막한 도시풍경을 일컬어 '회색빛'이라고 표현하곤 하지요. 우리 모두 내면엔 각자의 특색을 갖고 있지만, 힘든 업무에 치이고 바쁜 일상에 위축돼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색이 회색으로 물들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사무실을 알록달록 파스텔톤으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존중의 태도' 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언어습관 하나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는 전화를 생각해봅시다. 명확히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에 매몰되다 보니 존중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나요? 전화를 끊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여보세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등 사소한 표현 한 마디가 수화기 너머로 흐뭇함을 남길 겁니다. 말 한 마디가 만드는 '행복한 사무실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업무_협조에_감사드립니다

#파스텔톤_KCC를_위하여







오늘도 걱정없이 도담도담

미끄러질 걱정없이 실수해도 새어들 염려없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뒹굴며 우리 아이도, 강아지도 건강하게 자라주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가정용바닥재 부문 5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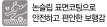


한국품질만족지수 PVC바닥재 부문 **11년 연속 1위**

'도담도담'이란 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 입니다 제품 코드명: FNR32-4873 / 컬러명: 탠저린 오크



한국애견협회 놀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





이음매와 틈새가 적은 시트타입으로 청소가 쉽고 위생적



고탄력 쿠션층으로 충격흡수성 우수





